「許子之詩」의 詩體選擇과 歸去來意志

박 수 천*

1. 序 言

허균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많은 업적이 누적되어 왔다. 국문학 연구사상 허균만큼 줄기차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작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업적은 주로 소설사적인 관점에서 그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홍길동전》과 그것과 관련된 5편의 傳 작품에 대한 제반 문제의 해명에 집중되어 왔다. 그만큼 허균 문학에 대한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홍길동전》 및 5편의 傳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중요한 것이지만, 허균의 작가적 면모나 문학적 업적이 단지 그것에만 그치지 않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이 스스로 편집한 문집 《성소부부고》는 그의 문학적 역량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는 詩·辭·賦·序·記·書·論·說·辨·解·題跋·讀·箴·銘·頌·讚·誄·哀辭·祭文·碑·碣·墓誌 등 당시에 통용된 거의 모든 양식의 글을 통하여 훌륭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문학적 識鑑이 높았던 그는 자신의 문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문학으로서의 작품적 가치가 없는 것, 후대에 남길만하지 못한 것 등을 모두 배제하였으므로 《성소부부고》는 그의 문학의 精髓라 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허균의 문학에 대한 전체적 조망은 위에서 보인 양식의 글을 개별적으로 연구한 후 이를 다시 포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

* 박사과정

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그의 시를 검토하려고 한다. 허균 문학의 총체적 면모를 究明하기 위하여는 그의 시 작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1개의 詩稿에 430餘篇 730餘首의 방대한 작품을 남긴 그는 분명히 뛰어난 시인의 재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시를 검토하지 않고서 그의 문학세계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동안 그의 문학관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詩論에 대한 논의는 간간이 진행되었으나[1] 시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零星한 형편이다.[2] 본고에서는 허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업적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허균시의 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적인 특성의 검토에서 출발하여 시에 표출된 작가의 의식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본고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미리 지적해 두도록 한다. 현재 漢詩 연구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점은 작품의 시적 성취 정도를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漢詩의 언어적·형식적 특성과 작법의 탐구, 그리고 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평가하던 當代 사람들의 견해와 著作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점과 과제를 의식하면서 허균의 시적 특성을 보일 수 있도록 현존하는 여러가지 자료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

2. 詩人 許筠과 「許子之詩」

허균은 스스로 문장가로서 보다 시인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단지 조

1) 趙鍾業, 許筠詩論硏究, 장암 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1971.
허경진, 鶴山樵談硏究, 연세대대학원, 1975.
金鍾煥, 惺叟詩話硏究, 경북대 대학원, 1980.
安炳鶴, 許筠의 文學論硏究, 민족문화연구 15집, 1980.
金 泳, 許筠의 文學觀에 대하여, 東方學誌 26집, 1981.
拙 稿, 國朝詩刪의 選詩觀 硏究, 서울대 대학원, 1986.
이외에도 허균의 문학과 사상을 다룬 업적 속에 자주 그의 詩論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2) 黃浿周, 許筠詩硏究, 경북대 대학원, 1981.
安炳鶴, 許筠의 詩世界와 自我意識, 韓國漢文學硏究 5집, 1981.

선조 사대부의 필수교양으로 시를 배우고 썼던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였다. 그는 평생동안 시를 좋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1) 許子는 머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古詩 읽기를 좋아하였다. 이해하고 못하고를 막론하고 문득 책을 펴면 밥먹기도 잊었다. 그렇게 하기 수십년에 이르도록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3]

이는 그가 시를 좋아한 정도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기록이다. 조금의 과장이 섞인 진술이겠지만 그가 수십년 동안 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곧 시를 교양이나 餘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시를 일상생활화하고 하나의 業으로 삼았던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시를 酷好한 만큼 언제나 시인의 태도로 詩作에 임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작품에도 잘 나타난다.

(2) 誰道書生病　詩成氣自豪[4]
(뉘 이르나 書生이 병들었다고
시 짓자 기운은 절로 솟는 걸.)

(3) 憑高聊暇日　眺遠且詩情[5]
(높은 루에 기대선 한가로운 날
저멀리 바라보니 또한 詩情이로세.)

(4) 勞生却被仙翁笑　三過開城不賦詩[6]
(고달픈 내 生은 仙翁의 웃음거리
세번 지난 開城에서 시 한편 없었으니.)

이 세편의 시귀절은 자신을 시인으로 자부한 대표적인 예이다. (2)는 평소에 흠모하던 明의 于麟 李攀龍이 쓴 시 〈閣夜〉의 韻字를 따라 지은 4수 중 둘째수의 結聯이다. 병이 든 중이라도 시를 완성하고 나면 기운

허경진, 許筠詩研究, 평민사, 1984.
金台植, 許筠文學研究, 서울대 사범대 국어국문학 논문집 22집, 1985.

3) 許子髮未燥, 已嗜讀古詩 毋論具解不解 而輒展卷忘食 積數十年 不怠一日(古詩選序, 성소부부고 권4)
4) 〈幕府無事用于鱗閣夜韻自遣〉(성소부부고 권1. 幕府雜錄)
5) 〈義州〉(성소부부고 권1, 戊戌西行錄)
6) 〈松京謝四耐〉(上同)

이 저절로 솟는다는 말은 시인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3)은 戊戌年 西行 길에 義州에서 쓴 작품의 頷聯이다. 높은 누각에 올라 툭트인 먼경치를 바라보니 詩情이 한껏 일어난다고 한 말이다. (4)도 戊戌年 西行 길의 작품인데 開城을 지나면서 쓴 7언절구의 轉·結句이다. 시인이라면 새로운 경물을 만날 때는 언제나 그 감회를 한편 시로 읊어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신은 開城을 세번씩이나 지나면서도 시를 쓰지 못하였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시를 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시인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허균은 자기 스스로만 시인이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世間에서도 그를 뛰어난 시인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5) 천부의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와 여러 서적에 널리 통하고 詞章에 뛰어났다. 단지 사람됨이 경망하여 족히 볼 만한 것이 없다.[7]

(6) 허균은 비단 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천성이 또한 총명하고 민첩하여 典故와 중국의 인물을 많이 알고 있다.[8]

(7) 저와 같은 사람이야 비록 앞의 네분들(工曹의 벼슬을 했던 何孫·杜甫·張籍·蘇軾——필자주)에게야 미치지 못하지만 또한 한시대에 요행히 詩名을 얻어 公께서도 칭찬하고 권장했던 자입니다.[9]

宣祖實錄에 보이는 (5)와 (6)의 귀절은 둘다 허균이 詩業에는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7)은 月沙 李廷龜에게 工曹의 벼슬을 구하고자 보낸 편지의 한 귀절이다. 世間에서 시로 명성을 얻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1597(선조 30)년 文科重試에 장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1607(선조 40)년에는 여름·가을·겨울에 세차례 보는 벼슬아치의 법전 시험에서 모두 일등을 차지한 일도 있었다. 또 1609(광해 1)년

---

7) 賦性聰慧 博通群書 長於詞章 但爲人輕妄 無足觀者(宣祖大王實錄, 三十年 十月十三日)

8) 許筠非徒能詩 性且聰敏 多識典故及中朝事(宣祖大王實錄, 三十四年 十一月 十八日)

9) 僕雖不逮四子者 亦一時僥窃詩名 而左古所嘗奬借者(與李月沙 庚戌九月, 성소부부고 권20)

에는 弘文館의 月課에서 잇달아 세차례 일등을 하였으며, 1615(광해 7)년에는 文科庭試에서도 일등을 차지한 바가 있었다.[10] 이러한 그의 재능 때문에 잦은 파직에도 오래지 않아 다시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作詩의 어려움을 종종 읊으면서도 자신의 시 명성에 상당한 자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

허균은 1611(광해 3)년 咸悅 유배시에 續夢詩 10편, 和思穎詩 29편, 和白詩 25편을 만들었다. 續夢詩의 自序를 보면 그가 꿈속에서 何景明·徐禎卿·王世貞과 樂府 짓기를 겨루었는데 王世貞보다는 조금 뒤졌으나 何景明·徐禎卿보다는 나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王世貞에다 견주었다. 비록 꿈이란 허구에 가탁하였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和思穎詩와 和白詩는 각각 歐陽修와 白居易의 작품에 和韻한 것이다. 和韻詩는 시인의 性情을 해치고 시의 기운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시적 재능을 啓發하고 詩才를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어떻거나 和韻詩는 시 학습의 과정 중에 옛사람의 詩體를 배우고 作法을 익히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어 왔다. 또 사신의 접대, 師弟·朋友 간에 존경을 표하거나 우의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서로 和韻詩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和韻詩는 원시보다 뛰어나야 그 시적 성취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었다.

> (8) 화답하는 시는 당연히 본시의 뜻과 말이 어떠한지 살펴서 그 뜻으로 화답하여야 다시 新奇하게 된다. 반드시 한두 귀절의 雄健하고 壯麗한 말을 만들어야 본시를 압도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和韻詩는 결코 쉽게 지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다. 허균이 歐陽修와 白居易의 시에 和韻한 것은 그들의 시적 경지와 겨루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자부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허균은 作詩法, 곧 作詩의 원리를 唐詩에서 찾았다.

---

10) 이이화가 정리한 허균의 연보에 자세하다.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나무, 1980.

11) 官述且徵祿 詩名誰壯元(次而述見贈作, 성소부부고 권1, 太僕藁) 등의 시귀절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賡和之詩 當觀元詩意語如何 以其意和之 則更新奇 要造一兩句雄健壯麗之語能壓倒(楊載, 詩法家數)

(9) 시의 원리는 상세하고 곡진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끊어져도 뜻은 이어지고 가리키는 것은 가까와도 旨趣는 멀어야 한다. 理路에 잡히지 않고 말의 통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인데 唐人의 시에 종종 이와 가까운 것이 있다.[13]

허균은 시란 말은 끊어져도 뜻은 다하지 않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하였다. 그는 〈詩辨〉[14]에서 作詩法을 보다 상세히 논의하였다. 그 作詩法을 요약하여 보면, ① 意趣를 먼저 하여 뜻을 세운다 ② 格을 따라 말을 만든다 ③ 句와 字를 원활하게 하고 음향이 맑고 節奏가 굴도록 한다라고 정리된다. 먼저 意境을 분명히 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體格을 택하여 辭語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辭語는 글자의 연결이 원활하여 낭송하면 매끄럽고 그 음향이 맑게 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렇게 하여야 시가 시다와질 수 있고 비로소 唐詩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말한 것이다. 허균이 作詩와 詩評에서도 시의 소리와 성율을 중시하였던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5]

(10) 시란 別趣가 있는 것이니 理와 관계치 아니하며, 시란 別材가 있는 것이니 글과도 관계가 없다. 오직 그 天機를 놀리고 玄造를 빼앗는 즈음에 있어 神이 내어나고 울림이 밝으며 格이 뛰어나고 생각이 깊어져 가장 上乘이 된다.[16]

여기서는 시란 天機를 놀리고 玄造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허균에 있어서 天機란 천지자연의 오묘한 비밀 또는 원리이며, 玄造는 그것의 그윽한 조화를 의미한다. 곧 시란 천지와 자연의 오묘한 질서, 그 윽한 조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자연과 인생을 노래하되 그 표면적인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보다 깊은 내적질

13) 詩之理 不在於詳盡婉曲 而在於辭絕意續指近趣遠 不涉理路 不落言筌 爲最上乘 唐人之詩 往往近之矣(宋五家詩鈔序, 성소부부고 권4)
14) 〈詩辨〉(성소부부고 권12)
15) 拙 稿, op. cit.
16) 詩有別趣 非關理也 詩有別材 非關書也 唯其於弄天機 奪玄造之際 神逸響亮 格超思淵 爲最上乘(石洲少稿序, 성소부부고 권4)

서를 간파하여 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훌륭한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허균은 작시론과 비평론의 거점을 唐詩에다 마련하였지만 자신의 작품은 이것마저 뛰어넘고자 하였다. 그는 모방하고 답습하는 일을 극력 부정하였다. 唐人의 시를 배우는 것이 詩學의 정도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터득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융해하여 자기나름의 시를 창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11) 대개 제각기 나름대로 일가로 이룬 연후에야 바야흐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17]

(12) 남의 발 뒷에서 생활하는 자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18]

〈詩辨〉의 이러한 진술은 비단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 개성적인 일가의 경지를 지향코자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각 시대는 그 시대 나름의 詩學이 있었고 일가를 이룬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영역을 개척하였던 사람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옛사람의 법도를 배우고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삼았다.

(13) 翁께서는 저의 근체시가 純熟하고 嚴穩하여 盛唐을 따르지 않았다고 여기시어 물리쳐 돌아보아 주지 않았읍니다. 오직 고시를 좋다고 하시며 顔延之·謝靈運의 풍격이 있다고 하시니, 이는 翁께서 주착되어 밝게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저의 고시는 비록 예스러우나 이는 그대로 모방한 것이어서 逼眞할 따름입니다. 집 아래 다시 집을 지었으니 어찌 족히 귀하겠읍니까. 근체시는 비록 逼眞하지는 않으나 저절로 나름의 조화가 있읍니다. 저는 저의 작품이 唐과 비슷하거나 宋과 비슷할까 두려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許子之詩라 말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지나칠른지요.[19]

이것은 그의 스승 李達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李達이 그의 근체시와

17) 盖各成一家 而後方可謂至矣(詩辨, op. cit.)

18) 其於人脚跟下爲生活者 非豪杰也(上同)

19) 翁以僕近體 爲純熟嚴穩 不涉盛唐 斥而不御 獨善古詩 爲顔謝風格 是翁膠不知彰也 古詩雖古 是臨榻逼眞而已 屋下架屋 何足貴乎 近體雖不逼眞 自有我造化 吾則懼其似唐似宋 而欲人曰許子之詩也 毋乃監乎(與李蓀谷, 己酉四月, 성소부부고 권21)

고시를 평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李達은 고시와 唐詩의 풍격을 규범으로 허균의 작품을 재단하였으나 허균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李達에게 시를 배우고 唐詩를 깨쳤지만 그것을 넘어선 「許子之詩」를 강조하였다. 어느 누구의 시와도 구별될 수 있는 자기만의 개성적인 시적 경지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3. 「許子之詩」의 詩體選擇

허균의 시는 《성소부부고》 외에도 《海東繹史》·《列朝詩集》·《皇華集》 등에도 실려 있다. 이것은 이미 허경진에 의해 정리된 바와 같이[20] 중복되거나 소략하여 본고에서는 《성소부부고》만을 대상으로 한다. 《성소부부고》는 1611(광해 3)년 咸悅 유배시 허균이 스스로 편집하였다. 작품을 詩體別로 분류하지 않고 저작시기 순으로 배열하였다. 문집의 편집을 염두에 두고 관직이나 처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단위로 미리 묶어 두었던 詩稿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그의 詩稿는 《丁酉朝天錄》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1597(선조 30)년 文科重試에서 장원하여 정 9품의 藝文舘 檢閱에서 정 6품의 禮曹佐郎으로 승진한 후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쓴 작품을 모은 詩稿이다. 그 이전의 작품인 《蛟山臆記詩》는 따로 전해오다가 正朝代에 수집되어 문집 권 2에 補寫되었는데 애초에 허균은 그것을 문집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소부부고》의 詩稿는 1597년~1611년까지 약 15년간의 작품이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허균의 시세계는 이 시기에만 국한된다. 그 이전의 작품적 면모는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蛟山臆記詩》를 통하여 소략하게나마 짚어볼 수 있다. 그러나 咸悅 유배 이후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아 생애 후기의 작품적 면모는 검토하기 어렵다. 문집이 완성된 후 白居易의 〈閑吟〉에 和韻하여 쓴 작품에서 '시와 문 열권을 바야흐로 다 썼으니 이제부터 惺翁은 다시 읊지 않으리라(詩文十卷方書了 從此惺翁不復吟)'[21]라고 한 만큼 그후엔 한편의 작품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성소부부고》의 詩稿는 허균의 전

20) 허경진, op. cit. pp.42~51.
21) 〈文集完用閑吟韻〉(성소부부고 권2, 和白詩)

생애에 걸친 작품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중반기 약 15년간의 작품만 실려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許子之詩」의 특성을 검토해 보자. 우선 허균의 詩稿들을 詩體別로 재정리하여 도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22]

詩稿名	시기	관직	5절	7절	5율	7율	5배	7배	5고	7고	잡체	비고
丁酉朝天錄	1597	병조좌랑(정6품)	2	6	20	4	1		3	1		
幕府雜錄	1598	〃	1	8	5	2			1			
戊戌西行錄	1598	〃		8	10							
佐幕錄	1599	황해도사(종5품)	1	5	10	3	2		2			
南宮藁	1600	예조정랑(정5품)		5	5	2			1	1		
南征日錄	1601	〃				26						
壬寅西行錄	1602	형조정랑(정5품)	1		5							
騎省藁	1602	병조정랑(정5품)		2	3	2						
太僕藁	1602	사복시정(정3품)		3	9	4			1			
楓嶽紀行	1603	금강산기행(파직중)	3	7	15	5	1		13	3		
遼山錄	1604	수안군수(종4품)	1	4	19				1			
光祿藁	1606	의흥위대호군(종3품)		5	3							
眞珠藁	1607	삼척부사(종3품)		2	8	1			2			
大官藁	1607	사복시정(정3품)		7	5	2						
秋官錄	1609	형조참의(정3품)		1	8	2						
病閑雜述	1610	병한중(파직중)		7	1	5	2		2	3		
宮詞	1610	병한중(파직중)		1								
和思穎詩	1611	함열유배기		(100) 1	4	17	1		1	2		부록 3
續夢詩	1611	〃									10	악부
和白詩	1611	〃	1	10	6	5	2				1	
蛟山臆記詩	1597 이전	임란전후		12	7	24				6	14[23]	

22) 허균의 작품수는 金台植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op. cit.). 본 도표에서의 숫자는 작품의 篇 수를 계산한 것이다.

23) 《蛟山臆記詩》의 잡체는 樂府 5편, 詞 6편, 7언6구체 1편, 5언6구체 1편, 7언율시와 5언절구의 복합 연작이 1편이다.

위의 도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각 詩體 중 5언율시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물론 7언율시가 그에 비견할 만큼 많이 실려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7언율시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흔히 즐겨 사용한 詩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허균만의 특징적인 면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5언고시와 7언고시 등의 고시가 비교적 많이 실려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詩稿 전체를 통해 볼때 5언율시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창작되었는데, 이것은 허균이 5언율시를 자신의 개성적인 詩體로 선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습작기의 작품인 《蛟山臆記詩》에서는 7언율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詩體를 실험하였다. 근체·고체·樂府·詞·6구체 등에 걸쳐 나름대로의 작품을 창작하여 보았다. 스승 李達의 시에 和韻을 하기도 하고 杜甫의 7언율시 〈懷古〉 5수 연작을 그대로 步韻하며 詩才를 다듬기도 했다. 또 자기 주변의 朴內翰·李員外·崔博士 등이 쓴 7언율시의 韻을 가지고 자신의 詩才를 과시했으며 口號·即事 등의 시로 자신의 英敏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더우기 〈七夕有懷〉는 3일에 걸쳐 각각 12수씩 쓴 7언율시 36수의 연작으로 자신의 무궁한 詩才를 유감없이 실험하였다. 습작기를 지나 《丁酉朝天錄》 이후에는 7언율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5언율시의 비중이 높아진다.

5언시는 7언시보다 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이어야 득의작을 생산할 수 있다. 절구는 물론이거니와 율시도 마찬가지였다. 5언시는 말을 절제하며 음율을 다듬어야 하는 여건이 7언시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허균은 습작기에 唐詩를 배우면서 여러가지 詩體를 가지고 자신의 시적 재능을 실험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唐詩에서도 5언율시가 가장 뛰어난 詩體이며 그것이 자신의 재능과 취향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詩體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14) 율시는 唐에서 번성하였는데 5언율시가 더욱 번성하였다.[24]

(15) 시를 배우는 것은 모름지기 5언율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욱 나아가면 5언고시를 만들 수 있으며 확충하면 7언율시를 만들 수 있고, 자르면 5언절구를 만들 수 있으며 확충하여 자르면 7언절구를 만들 수 있다.[25]

---

24) 律詩盛於唐 而五律爲尤盛(沈德潛, 說詩晬語)

25) 學詩須從五律起 進之可爲五古 充之可爲七律 截之可爲五絕 充而截之 可爲七絕(峴傭說詩)

(14)와 (15)는 唐·宋 이후 중국에서 시학습에 5언율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唐에서 5언율시가 번성하였으며, 5언율시를 연마하면 거기에서 각체가 고루 구비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5언율시는 매우 까다로운 詩體여서 좀처럼 득의작을 생산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16) 劉禹錫이 일찌기 사람들과 시를 논하며 말하기를, '5언율시는 마치 40명의 賢人과 같다. 한 자를 쓰는 데도 도살업자나 술파는 사람과 같이 해서는 얻을 수 없으니 귀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옥을 얻으려고 땅을 파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26]

(17) 5언율시는 大曆 이후로부터 높은 음율을 만든 사람이 점점 적어졌다. 宋人의 7언율시는 唐人의 경지를 따를 만하지만 5언율시는 음송해 볼 만한 작품이 드물고 높은 것도 겨우 晩唐에 이르러 그칠 따름이다.[27]

자료 (16)은 5언율시의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어렵고 중요하여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글자 한자가 한 사람의 賢人과 같아 한 편의 작품 내에서 동등한 비중을 갖고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5언율시에서는 虛字를 피하고 가능하면 모두 實字만을 사용해야 했다.[28] 그러므로 시인은 옥돌을 찾는 듯이 심혈을 기울여야 볼 만한 귀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5언율시는 唐人들만 득의작을 이룰 수 있었고, 宋人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唐人 수준의 5언율시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하나의 귀절이 단지 다섯자밖에 되지 않으나 성율과 댓구의 구속을 받으면서 餘音이 쟁쟁 울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적 재능이 극히 뛰어나야 가능했던 것이다.

허균은 다른 어느 詩體보다도 5언율시를 자신의 詩體로 선택하였다. 음율의 조화가 시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었던 그는 5언율시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詩體였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作詩의 원리를 唐詩에서 찾았고 타인의 작품을 비평·평가하는 준거도

26) 劉昭禹嘗與人論詩曰 五言律四十個賢人 著一字 如屠沽不得 覓句者 若掘得玉(尤袤, 全唐詩話)

27) 五律自大曆以後 高調者漸少 宋人七律 可追唐人 五律罕可誦者 其高者僅至晩唐而止(陳衍, 石遺室詩話)

28) 五言律 皆用實字(徐師曾, 四溟詩話)

唐詩에서 가져왔다. 허균은 唐詩 중에서도 음율의 조화가 가장 뛰어나고 달속에 다함이 없는 餘響의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5언율시가 자신의 재능에 합당한 詩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5언율시를 통해 唐詩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許子之詩」를 성취하려 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18) 遠客愁無睡　新凉入鬢絲
鴈聲天外遠　蟲語夜深悲
動業時將晩　漁樵計亦遲
起看河漢轉　曉角動城埤[29]
(먼 나그네 시름에 잠도 없고
서늘함이 귀밑머리 찾아드네.
기러기 소리 하늘 밖에 멀고
벌레 소리 밤 깊도록 슬프다네.
動業은 때가 벌써 늦어지니
귀거래할 계획도 더뎌진다네.
일어나 쳐다 보니 은하수 돌아
새벽 고동이 성벽을 울린다네.)

(19) 涉巇眺蓬萊　瓊峰四面開
蒼茫日月色　照耀金銀臺
高嘯千岩動　長風萬里來
王喬在何處　天外鶴飛回[30]
(가파른 고개 올라 蓬萊山 바라보니
구슬같은 봉우리 사면으로 열렸어라.
蒼茫한 해와 달의 빛
비치어 반짝이는 금은빛 臺.
높은 휘파람에 일천 바위 흔들리는 듯
긴 바람은 만리 넘어 불어오네.
王喬 신선 어느 곳에 있나
하늘 밖에서 학만 날아 돌아오네.)

29) 〈杏山〉(성소부부고 권1, 丁酉朝天錄)
30) 〈歡喜嶺〉(성소부부고 권1, 風嶽紀行)

위의 작품은 5언율시의 한 例이다. (18)은 《丁酉朝天錄》의 작품인데 나그네길에 겨운 시름을 읊었다. 平聲支韻으로 압운하였으며 근체시의 기본율조를 따랐다.[31] (19)는 《楓嶽紀行》의 작품인데 歡喜嶺에 올라 본 경치를 읊었고 平聲灰韻으로 압운하였다. 句法을 살펴보면 '四'가 율조를 벗어났고, '日'과 '金'이 율조를 벗어나 각각 下三連이 되었지만 對句相扶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在'와 '何'도 평측이 율조를 벗어나 本句相扶를 하였다. 나름대로 句法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다. 두 聯句가 軒擧하다는 주석으로 보아 頷聯과 頸聯의 의경과 기격이 호기로움을 지적하였다고 하겠다. 허균은 5언율시를 자신의 詩體로 선택하면서도 그 율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나름의 음율을 개척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작품에 종종 드러나 보인다. 자료 (19)가 下三連의 병통을 꺼리지 않은 점도 한 例이다.

(20) ×××○○ ○○×××⊙
禮敎寧拘放 浮沈只任情
○○×○× ○×××○⊙
君須用君法 吾自達吾生
○×○○× ○○×××⊙
親友來相慰 妻孥意不平
○○××× ×××○⊙
歔然若有得 李杜幸齊名[32]
(禮敎가 어찌 나를 구속하겠나
浮沈은 단지 情에 맡길 뿐.
그대는 그대의 法 써야 할게고
나 자신은 내 삶을 이룰 것이네.
친한 벗들 와서 서로 위로하지만
처자들 마음엔 불평이구려.
흐뭇하여 얻음이 있는 듯하니
李杜처럼 이름을 나란히 했네.)

이 작품은 〈聞罷官作〉 2수의 두번째 것이다. 허균은 불교를 믿는다 하여 郭再祐는 도교를 숭상한다 하여 司憲府 狀啓에 의해 함께 파직되었는데 이 일을 들어 結聯에서 李白·杜甫처럼 행복하게도 郭公과 함께 並稱되었다고 읊었다. 이 작품의 意境은 頷聯으로 요약되는 바 자기는

31) 근체시의 기본율조는 拙稿(op. cit. pp.27~37)에서 정리한 바 있다.
32) 〈聞罷官作〉(성소부부고 권2, 眞珠藁)

자기대로의 삶을 이룰 것이며 禮敎의 구속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句法을 보면 '用'과 '君'이 本句相挾되었고 '若'字가 측성이라 下三連의 병이 되었지만 구태여 기피하려 들지 않았다. 또한 첩어를 제외하고 같은 글자를 두번 이상 쓸 수 없는 율시에서 그러한 구속을 벗어났으며, 5언율시에서 특히 꺼리는 虛字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음율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을 쓰겠다는 뜻을 표명한 경우도 있는 만큼[33] 주어진 격식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음율을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는 자신이 주장한 「許子之詩」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허균의 5언율시는 위에서 예시한 작품들과 같이 대체로 일상적인 자신의 서정과 경물에 대한 감흥을 담아내고 있다. 이에 비해 희망적인 기대, 포부, 즐거운 등의 정서는 대체로 7언율시를 선택하여 표현하였음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南征日錄》은 禮曹正郎의 직책으로 湖南의 科試를 주관하였던 시기의 작품이다. 그는 훌륭한 인재를 뽑는 試官이 된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만족과 포부를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 오직 7언율시만 26편이 남아있음은 그의 詩體選擇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허균은 역사적 회고 또는 역사인식, 현실인식을 술회할 때는 주로 5언·7언의 고시를 선택하였다. 〈駐驆山歌〉〈帝都〉〈過浦隱舊宅歌〉〈海州〉〈老客婦怨〉 등이 그러한 例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각 경우별 詩體選擇이 허균의 모든 시에 두루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詩體別로 그러한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 보인다는 사실은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후고를 기약하겠다.

4. 歸去來 意志의 변모

허균의 詩稿에서 意境의 두드러진 특징은 귀거래의 의지이다. 허균이란 인간의 행적과 사상 때문에 그의 시에 대해서도 현실비판적, 실천적 의지가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이 대부분이리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詩稿의 전편을 살펴보면 실상은 이와 다르다. 현실 비판적 견해만을 표명한 작품의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고 표면적인 意境은 귀거래 의지의 표명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그의 사상을 기저에 담고 있으므로

33) 〈有懷〉(성소부부고 권1, 南宮藁)

작품의 해석을 이와 관련지어 풀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丁酉朝天錄》 이전인 습작기의 《蛟山臆記詩》에서부터 줄곧 귀거래가 노래되며 《和思顚詩》는 전체가 귀거래의 열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허균의 귀거래 의지는 《성소부부고》의 전 시기에 모두 동일한 관념에서 표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약 15년간의 짧은 시기이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露呈됨을 窺知할 수 있다. 그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허균의 인식 및 대응과 관련이 깊다.

(21) 嗟余久厭承明直　幾日抽簪賦隱居[34]
(아아 내가 대궐 입적 싫어한 지 오래거니
어느날에 簪 던지고 隱居를 노래할까.)

(22) 過盡一春歸未得　釣竿辜負武陵溪[35]
(한 봄 다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나니
武陵 시내 낚시할 일 부질없이 저버렸네.)

(23) 春來海上多歸夢　慙愧烟波舊釣徒[36]
(봄이 와 바닷가로 돌아갈 꿈 많아지니
부끄럽구나 烟波와 옛 낚시벗에게.)

(24) 蜚鼈計已成　軒紱情還小
歸去隱少林　巖扉伴猿鳥[37]
(은둔 계획 이미 이뤄지니
벼슬 뜻 도리어 적어지네.
돌아가 조그만 숲속에 숨어
바위 사립에 새·원숭이와 짝하리라.)

(21)~(24)는 《蛟山臆記詩》에서 귀거래를 읊은 몇 例이다. 갓 벼슬길에 나왔던 시기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내던지겠다고 읊었다. (21)과 같이 얼마 되지 않은 미관말직의 벼슬살이에 벌써 염증이 났거나, 또는 (24)와 같이 벼슬길에 들어서면서 장차 은둔할 계획까지 세웠

34) 〈次李員外韻〉(성소부부고 권2, 蛟山臆記詩)
35) 〈退朝晩望〉(上同)
36) 〈口號贈鄭太史〉(上同)
37) 〈感興 又〉(上同)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귀거래 의지는 다분히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른 것이었다. 언젠가는 귀거래를 단행하리라고 뜻은 품었지만 당장에 실천으로 옮길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고 훌륭한 功名을 이룬후 명예로운 귀거래를 갈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詩稿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작품이 적지 않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5) 元日到人日　日日皆快晴
處處人語別　皆云時太平
我有數畝田　寄在於臨瀛
行當王事了　歸去耦而耕[38]
(元日에서 人日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모두 화창하였네.
곳마다 사람들 말 다르긴 하나
모두가 시절이 태평이라네.
나도 몇 이랑 밭이 있어
瀛州 가까이에 붙여 두었네.
나라일 행하여 마치고 나면
돌아가 밭이나 갈아야겠네.)

《幕府雜錄》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태평시절을 노래하며 귀거래의 뜻을 읊었다. 율시인 듯 하지만 고시라고 보아야 한다. 句法과 黏法이 근체시의 율조에서 너무 벗어나며 또한 平聲庚韻으로 압운하면서 出句 脚節에 平聲인 '田'字를 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근체의 율조를 이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조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 작품에서는 주어진 나라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귀거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과 쉽게 화합되지 않았다. 경박하고 오만한 성격적 결함과 주변의 질시, 자신의 이상을 제대로 펴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의 원인으로 파직은 잦아지고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벼슬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으나, 점점

38) 〈寧寧人日〉(성소부부고 권1, 幕府雜錄)

어려워진 생활 때문에 쉽게 벼슬을 떨쳐 버릴 수도 없게 되었다. 1600(선조 33)년에 林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몹시도 벼슬을 던지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몇 말의 녹봉에 연연하여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39] 1607(선조 40)년에 崔天健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벼슬 하는 것은 가난 때문이며 妻子를 보호하여 飢寒이나 면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썼다.[40]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귀거래 의지는 모순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26) 秋熟郊原喜　歡聲遠近聞
家家傾白酒　處處割黃雲
可笑無田客　空書乞米文
城東借三畝　何日事耕耘[41]
(가을이 무르익자 온 들이 기뻐
환성이 여기저기 들리는구나.
집집마다 막걸리 기울이고
곳곳에서 누런 벼를 베어오네.
가소롭다 농사 없는 나그네
부질없이 쌀 빌 편지 쓴다네.
성 동쪽 세이랑 밭을 빌어
어느날에 밭갈고 김메어 볼꼬.)

이것은 《騎省藁》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平聲文韻으로 압운하였으며 대체로 기본 율조를 따르고 있다. 다만 結聯에서 '借'와 '三'이 本句相拯되었다. 집집마다 풍년을 노래하며 누런 벼를 베어오지만 자신은 구차하게 쌀을 빌어야 했다. 여기서도 귀거래를 바랐지만 그것은 갈등으로 가득찬 귀거래였다.

허균은 관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진정한 학문을 하는 眞儒는 없고[42] 조정에서는 소인배들이 붕당을 만들어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현실이었다.[43] 정치는 어지러웠

39) 甚欲投紱 以貧戀斗祿 未果矣(與林子昇, 庚子七月, 성소부부고 권21)
40) 僕之仕爲 保妻子 免飢寒足矣(與崔汾陰, 丁未二月, 성소부부고 권20)
41) 〈出郊〉(성소부부고 권1, 騎省藁)
42) 〈學論〉(성소부부고 권11)
43) 〈小人論〉(上同)

고 군사와 국방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나라는 언제나 위태롭기만 했다.[44] 쓸데없는 관직만 무수하여[45] 정작 중요한 일을 집행하는 관리조차도 녹봉을 후하게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46] 자신이 벼슬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현실의 제반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허균은 왕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왕이 총명하게 公과 私를 밝힐 수 있다면 참과 거짓은 분명히 드러나 眞儒가 올바른 학문을 하여 나라에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소인배들이 전횡하고 붕당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그 근본기틀은 왕 한몸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47] 왕이 자신을 바르게 가진다면 현실의 제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또 왕이 훌륭한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밝음으로써 아랫사람을 살피고 믿음으로써 신하에게 맡겨야 하며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48] 그러므로 허균은 진정한 王道政治의 구현이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을 제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였다. 적어도 《성소부부고》의 시기에는 그렇게 주장하였으며 詩稿의 기저에도 그러한 사상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27) 太平無戰伐　民物荷聖恩[49]
(태평한 세월이라 전쟁 없으니
백성과 만물이 聖恩을 입었네.)

(28) 男兒一死固難逃　寧欲將身徇忠義[50]
(남아의 한번 죽음 피하지 못하거니
차라리 이 한몸 忠義에 죽어지고.)

이와 비슷한 진술은 詩稿의 도처에 보인다. 허균이 聖恩이나 忠義를

44) 〈兵論〉(上同), 〈西邊備虜考序〉(성소부부고 권5)
45) 〈官論〉(성소부부고 권11)
46) 〈厚祿論〉(上同)
47) 然則其機安在 在乎人君一身也 而亦不過曰正其心而已(學論, 上同)
48) 然則如之何而可 曰明以察其下 信以任其臣 斯二者是以盡之 而其終執與斷而已矣(政論, 上同)
49) 〈山海關〉(성소부부고 권1, 丁酉朝天錄)
50) 〈過圃隱舊宅歎〉(성소부부고 권1, 戊戌西行錄)

노래하는 것은 왕에 대한 무조건의 칭송이 아니다. 자신의 포부를 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전제 아래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그의 기대와 거리가 멀었으며, 귀거래에 대한 갈등의 진폭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허균의 귀거래 의지가 道·佛의 세계와 융합하는 사정도 不與世合에서 오는 비난, 이상과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崔天健에게 답한 書에서 세상과 어긋나 죽고 삶, 얻고 잃음을 마음속에 개의치 않게 되었고 차츰 老·佛을 따라 거기에 의탁하여 스스로 도피하였다고 말하였다.[51] 그의 시에서는 道·佛의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을 표백한 작품이 종종 발견된다. 관직생활에서도 불교를 믿는다는 규탄을 받아 遂安郡守에서 파직되었으며, 염주를 목에다 걸고 부처에 배향하였다고 하여 三陟府使에서 파직되기도 하였다.

(29) 久讀修多敎　因無所住心
周妻猶未遣　何肉更難禁
已分靑雲隔　寧愁白簡侵
人生且安命　歸夢尙祇林[52]
(불경을 읽은지 오랜지라
인하여 마음에 住着됨 없네.
周顒 처는 오히려 아니 보냈고
何胤의 육식 금하기 어렵네.
靑雲을 등진 걸 이미 깨달아
탄핵 글 날아든다 수심 않으이.
인생은 제 命에 편해야 하니
돌아갈 꿈 아직도 祇林에 있네.)

三陟府使에서 파직된 소식을 듣고 쓴 2수 연작 중 첫번째 작품이다. 불경을 오래 읽어 마음에 얽매임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불경 읽기를 좋아하였다. 시름겨울 때 읽으면 즐거워지고 지루할 때 읽으면 정신이

51) 僕崎於世 以爲死生得喪 不足芥滯於心 稍從老佛者流(答崔汾陰書, 성소부부고 권10)
52) 〈聞罷官作〉(성소부부고 권2, 眞珠藁)

난다고 하였다.[53] 그러나 그가 불제자는 아니었다. 周顒이 불교를 좋아하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살았듯이, 또 奉佛하였던 何胤이 육식을 끊지 못한 것처럼 자신도 불가의 교리에 매이지 않았다. 단지 높이 출세할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탄핵하는 上奏書가 날아든다고 해도 근심이 없을 수 있었다. 여기서도 귀거래의 꿈을 읊었다. 祇林으로 표현된 세계는 불제자로서 歸依하는 곳이라기 보다 허균이 그리는 또다른 이상세계의 비유이다. 자료 (28)은 平聲侵韻으로 압운하였으며 結聯에서 '且'와 '安'이 本句相挾되었을 뿐 근체시의 기본율조를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귀거래의 꿈을 道仙의 세계로 표현한 작품도 적지 않다. 그에게서 道仙의 이상세계는 불가의 이상세계와 차이가 없다. 그의 입장은 언제나 儒子였고 不與世合한 현실적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위안을 구하고자 道仙과 佛家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평생에 우르름은 先儒뿐인데 持論이 어찌 저 絕粒背와 같겠나(平生景仰是先儒 持論寧同絕粒夫)'[54] 라고 읊었듯이 자신의 지론이 辟穀하는 무리들과 다르며 평생토록 받들은 것은 先儒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균은 儒子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귀거래 이상향을 道仙的 또는 佛家的 이상세계에 가탁하였던 것이다. 허균의 이상향은 참된 王道政治가 구현되는 곳이었다.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이 없고 진정한 君子가 政事를 맡으며 누구나 지닌 능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사회였다. 보다 이른 시기의 귀거래 의지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한 후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귀거래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 현실적 상황과 자신의 포부가 부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의 귀거래 의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모순을 겪게된 것이다. 사회는 변들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고 관직은 번거로와 하서라도 내던지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궁핍 때문에 매여 있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한스러웠다.

(30) 宮嶽風塵際　幽居嶺海東
　　客愁寒食後　花事雨餘中
　　軒冕猶牽我　烟霞豈負公

53) 愁讀之而喜 倦讀之而醒(送李懶翁還枳怛山序, 성소부부고 권4)
54) 〈有感〉(성소부부고 권2, 病閑雜述)

歸期尙綿藐 咄咄且書空[55]

(벼슬길은 風塵의 사이지만
幽居는 嶺海의 동쪽이라.
寒食 지나 나그네 시름겨운데
빗 속에 꽃잎은 벌어지네.
軒冕이 나를 끌어 매지만
烟霞야 어찌 公을 저버리겠나.
돌아갈 기약은 아득도 한데
咄咄이라 허공에 글자만 쓰네.)

이것은 《성소부부고》의 후기에 溟州를 생각하며 쓴 작품이다. 平聲東韻으로 압운하고 있다. 句法으로는 頷聯對句의 '後'字가 평측규식을 벗어나 拗가 되었으나 구태여 救를 하지 않았다. 結聯出句에서는 '尙'과 '綿'을 本句相救하였다. 첩어를 제외하고 같은 글자를 두번 이상 쓸 수 없는 율시에서 '後'字가 반복되어 있는 점도 주목되는데 필사과정 중의 誤字가 아니라면 이 또한 규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猶' '豈' '尙' '且' 등의 虛字가 많이 사용된 점도 주어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특징적 면을 보여준다. 다시 意境으로 돌아와서 힘든 벼슬살이에 매여 귀거래하지 못하고 임금까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溟州는 江陵의 별칭이다. 자료 (25)의 瀛州도 江陵을 말한다. 허균의 외가가 江陵에 있었고 임란 중에는 그곳에서 피신한 적도 있었다. 허균의 시에서 귀거래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 江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江陵을 찾아가 은거하겠다는 뜻은 강하지 않았고 단지 江陵은 그에게서 귀거래의 관념적인 귀착지였다.

咸悅 유배기에 쓴 《和思潁詩》는 모두 귀거래의 시인데 江陵을 대상으로 하였다. 潁州는 歐陽修가 좌천되었던 곳인데 경치가 아름다와 귀거래의 이상향으로 삼았었다. 허균은 歐陽修가 潁州를 그리워한 시편들을 골라 和韻하여 《和思潁詩》를 만들었다. 《和思潁詩》의 시편들은 줄곧 江陵이라 표현된 귀거래의 이상향을 그리워 하며 유배에서 풀리면 곧장 달려가리라고 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배가 끝난 뒤에는 실제의 江陵

55) 〈憶溟州〉 (성소부부고 권2, 秋官錄)

으로 가지 않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咸悅 유배 이후의 詩稿가 없어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이 시기 이후 귀거래의 의지는 자신의 이상향을 현실에서 직접 이룩하겠다는 생각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宣祖의 뒤를 이어 자신이 사부였던 光海君이 등극하자 그에게 다시 王道政治의 구현을 기대하였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咸悅 유배 중에도 聖恩을 바라며 〈夢賚四物銘〉 등의 글을 짓기도 했지만 光海君의 현명한 결단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咸悅 유배 이후 李爾瞻의 大北 정권과 결탁하여 스스로 당쟁 속에 뛰어들었으며 仁穆大妃의 폐비와 永昌大君의 폐출에 앞장서 가담하면서 역모의 거사를 계획하였던 사실은 자신의 이상향을 현실세계 속에서 직접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結　言

이상의 논의는 허균의 시인적인 면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간의 연구가 허균을 주로 소설과 관련하여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허균이 문장가라기보다는 시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의 詩論은 그에 대한 문학관 또는 문학사상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미 많은 업적이 산출된 바 있다. 본고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허균이 개성적인 「許子之詩」를 창작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의식적인 면과 작품적인 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허균은 자신의 개성적인 詩體로 5언율시를 선택하였으며 규범적인 율조를 이해하여 자기 나름의 율조를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5언율시와 7언율시 그리고 고시의 선택 조건이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상세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 두었다. 허균의 시세계에서는 귀거래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소부부고》의 전 시기에 걸쳐 언제나 귀거래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조금씩 변모하였던 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보다 이른 시기의 귀거래 의지는 시적 소재였거나 또는 자신의 포부를 달성한 후 명예롭게 물러나 여생을 편히 즐기는 귀거래였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不與世合한 현실적 여건에 그의 귀거래 의지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후 咸悅

유배기를 전후하여 그의 귀거래 의지는 결국 관념으로 끝나고 귀거래의 이상향을 현실에서 직접 이루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허균의 생애 후기의 행적이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許筠全集,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국역 성소부부고 권Ⅰ～Ⅴ.
歷代詩話, 續歷代詩話, 淸詩話.
朱任生 편, 詩論分類纂要. 商務印書館, 1971.
申東旭 편,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이이화,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나무, 1980.
허경진, 許筠詩研究, 평민사, 1984.
_____, 鶴山樵談研究, 연세대대학원, 1975.
李文奎, 許筠 散文文學의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趙鍾業, 許筠詩論研究, 장암 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1971.
金鍾煥, 惺叟詩話研究, 경북대대학원, 1980.
安炳鴻, 許筠의 文學論研究, 민족문화연구 15집, 1980.
_____, 許筠의 詩世界와 自我意識, 韓國漢文學研究 5집, 1981.
金 泳, 許筠의 文學觀에 대하여, 東方學誌 26집, 1981.
박수천, 國朝詩刪의 選詩觀 研究, 서울대 대학원, 1986.
黃渭周, 許筠詩研究, 경북대 대학원, 1981.
金台植, 許筠文學研究, 서울대 사범대 국어국문학논문 22집, 1985.